

“영화 보고 울었죠... ‘힘내요’ 한 마디에 울컥”

처음 배우 될 때보단 인지도 쌓여 작품 시작 전 캐릭터 이력서 쓰죠 ‘솔직한 거짓말’ 같은 연기 하고파

“작품을 시작하기 전 캐릭터의 이력서를 써요. 이력을 탐구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만 ‘솔직한 거짓말’처럼 연기할 수 있거든요.”

유태오(38)가 물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솔한 캐릭터들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후과 백의 이분법 대신 다양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싶다”는 그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살피면서 연기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진중한 배우다.

그가 17일 영화 ‘버티고’(제작 영화사 도로시)를 내놓았다. 최근 드라마 ‘아스달 연가대’와 ‘배가본드’로 주목받은 뒤 처음 주연한 한국영화다. 2018년 러시아 록스타 빅토르 최의 이야기인 ‘레토’의 주연으로 이름을 새긴 그가 2년 만에 맺은 새로운 결실이기도 하다.

영화는 고층빌딩 뺨막한 도시에서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다. 유태오는 주인공 서영의 직장상사이자 연인 진수 역. 여직원들의 선망 대상이지만 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지닌 불안한 남자다.

유태오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완성된 영화를 보고나서도 눈물이



배우 유태오는 주연으로 나선 영화 ‘버티고’로 자신 또한 위로를 얻었다며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임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났다”고 했다. 극중 진수가 떠난 뒤 마음 돌 곳 없이 표류하는 서영을 말없이 지켜보던 또 다른 인물 관우가 “힘내요”라는 말을 건네는 부분이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위로의 한 마디가 부족한 시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힘내요’라는

말이 제게도 위로였습니다. ‘버티고’는 독특하고, 유일한 영화예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임했어요.”

유태오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뒤 미국 뉴욕에서 연기를 배우고 영국과 독일의 연극무대를 경험했다. 한국어와 독일어, 영어가 모국어처럼 익숙한 그는 여

러 나라를 오가면서 섬세한 감수성을 쌓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소통하는 법도 익혔다.

이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양분이 됐다. ‘버티고’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 연기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의 매력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처음 배우가 될 때 ‘피에로 분장하고 버스킹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기를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가족에게 말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인지도가 많이 쌓였죠. 그래도 만족하진 않아요. 부족한 게 보이니 짜증이 나요.(웃음) 자신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촬영을 마친 영화 ‘덤보’와 드라마 ‘보건의사 안은영’ 공개를 앞둔 유태오는 현재 드라마 ‘머니게임’도 촬영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두는 그가 요즘 꼭 빠진 분야는 요리와 건축.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각종 요리법은 물론 예술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대표 스타일까지 술술 풀어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이 ‘훗날 살아남는 문화는 우리가 머리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문화다’고 말했어요. 기술이 발전해 시를 넘어서는 시대가 올 텐데, 문화나 지혜의 통찰을 통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좀 영롱한가요? 하하!”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설리의 죽음이 쏘아올린 작은 공

아이돌 스타 제도적 보호 장치 필요 연습생 단계부터 정서적 성장 관심 가수협 “심리·법률 지원 방안 마련”

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연기자 고 설리(최진리·25)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중도 충격에 빠졌다. 2017년 12월 18일 사망한 그룹 사이니의 고 종현에 이어 또 다른 아이돌 스타의 극단적인 선택에 연예계에서는 안타까움과 성찰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이른 나이에 데뷔해 아직 정서적 성장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중에 노

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돌 스타들이 정서 불안에 시달리기 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실제 모습과는 또 다른 이미지로 비쳐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한다. 그룹 신화의 김동원은 16일 SNS를 통해 “어린 친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히 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보여줄길 바라는 어른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가요계의 현실을 꼬집었다. 종현도 유서에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다”며 아이들의 비애를 드러

내기도 했다.

이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성 댓글과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 등 외부적인 요인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소녀시대 태연, 카라 출신 구하라 등 적지 않은 아이돌 스타들이 이와 관련한 우울감과 공황장애를 호소해왔다. 이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부 스타들은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김동원은 “본인이 원해서 혹은 빠른 해결을 위해 항정신성약품 등 약물을 권유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청소년기에 극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돌 스타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선이다. 하지만 대중문화 평론가는 17일 “매니지먼트사들이 아직 어리고 젊은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등을 권유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실효성 있는 대처

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며 “데뷔 전 트레이닝 단계부터 정서적인 성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요계에서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대한가수협회는 이날 “유사한 비극에 노출되는 동료, 선배가 없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정신건강 및 법률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팬덤을 이루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영향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생명전회와 화상환자원은 “설리 사망 이후 온라인·전화 상담이 늘었다. 특히 청소년 상담자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아이돌 스타들의 처지와 동일시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다 간 설리

악플 방지법 요구·탈 코르셋 앞장 17일 발인...동료·팬들 추모 물결

결그룹 에프엑스 출신 연기자 설리(최진리·25)가 17일 세상과 영원히 작별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소신을 펼쳤던 그는 비록 악의적 댓글과 비난을 이겨내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

설리가 생전 악플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플 방지법’(일명 설리법)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함께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일부 스타들이 악플의 고통에 시달리다 세상과 등질 때에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나왔지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세상의 비뚤어진 시선과 맞서다 스러진 설리를 돌이키며 자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탈 코르셋’(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겠다는 의미) 이슈와도 맞물려 사회적 의식과 시선을 바꿔 놓았다. 속웃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의 SNS 사진과 영상이 그를 공격한 악성 댓글의 주된 원인이 됐지만 그가 “브래지어는 건강에도 안 좋고 액세서리일 뿐”이라며 굽히지 않은 소신은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

설리는 그동안 ‘결그룹 출신’이라는 이

유만으로 갖은 비이성적 시선에 시달렸지만 본명인 ‘진리’답게 ‘참된 이치’를 안겨 주고 떠났다. 그래서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발인식은 유족과 평소 절친한 연예인들을 포함해 소속사 S 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상과 등질 때는 철저히 혼자였어도 이날만큼은 수많은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애도했고, 팬들도 자발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추모제를 열어 눈물로 그와 이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록 스피릿 vs 아이돌 파워...선후배 밴드 대전

YB 정규 10집·넬 정규 8집 발표 데이식스·엔프라이밍 새 앨범 컴백

‘관록의 록 밴드 VS 패기의 아이돌 밴드’. 강한 개성만큼 특색 있는 음악으로 두터운 팬덤을 가진 대표 록 밴드의 대결이 펼쳐진다. 20년 이상 한 길을 걸어온 록 밴드와 ‘아이돌 밴드’가 선후배 사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선배 밴드는 각각 6년과 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YB와 넬이다. 여를부터 이어져온 발라드 열풍 속에서 밴드 특유의 강렬한 비트와 몽환적인 분위기 등을 적절하게 섞어 팬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YB는 정규 10집 ‘트와일라잇 스테이트’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음악’이라는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움에 대한

시도도 놓치지 않았다. 넬은 결성 2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정규 8집 ‘컬러스 인 블랙’으로 다양한 색깔의 ‘어둠’을 표현했다.

데뷔 후 줄곧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이들은 이번에도 이별, 약물, 우울 등 ‘블랙’의 정서를 전한다.

선배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아이돌 밴드도 불 만하다. 5인조 데이식스는 아이돌다운 활동상으로 3개월 만에 컴백한다. 22일 발표하는 새 앨범 ‘더 북 오브 어스:엔트로피’로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은 한층 성숙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선보인다.

최근 공개한 티저 이미지에서도 ‘하트, 러브, 에너지’ 등 단어를 공개했다.

4인조 밴드 엔프라이밍도 마찬가지다. 1월 내놓은 ‘옥탑방’의 차트 역주행으로 앨범 발표 시기의 공백을 크게 줄이며 4월에 이어 이달 또 한번 앨범을 발표하고 거침없는 활동을 이어간다. 15일 발표한 여섯 번째 미니음반 ‘야호’를 통해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며 자유분방한 모습을 표현했다. 타이틀곡 ‘굿밤’은 선선한 가을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청춘의 열정을 담았다. 이영민 기자

연예뉴스 HOT 4

성훈, 말레이시아 팬들과 특별 만남



성훈

연기자 성훈이 말레이시아 팬들을 만난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사랑받고 있는 성훈이 1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미트 앤 그릿’ 프로모션 행사에 참석한다. 유별난 팬 사랑으로 유명한 그는 이번에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를 통해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 지난 투어 때 반갑게 맞이해주셨던 때가 생각난다”면서 “현지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프듀X’ 조작, 과징금 가능”

엠넷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심의위가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동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시간에 대해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방송법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1000~3000만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유비·김일중, 소방 홍보 재능기부



하유비

김일중

가수 하유비와 김일중 전 SBS 아나운서가 소방정책을 알리는 홍보 음원에

재능기부했다. 이들은 10일과 15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주요 소방정책을 알리는 홍보 음원을 녹음했다고 인천소방본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음원은 인천소방본부와 하유비 소속사 제이제이, 김일중 아나운서의 소속사 FUN한테이먼트가 공동 제작해 인천소방본부의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하유비의 밝은 음성과 김 아나운서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담겼다. 이들은 11월 8일 인천광역시 소방의 날 행사에서도 공연한다.

반독과점 영대위, 영화 발전 세미나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가 한국영화 발전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벌인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가 ‘대기업의 상영·배급 수직 통합에 따른 시장 실패’,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이 ‘한국영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발제한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배장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에 참여한다.